



광주교육청 'AI·SW 체험축전'

최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시교육청 AI·SW 체험축전'에 3만여명이 넘는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이 몰리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축전은 '미래를 여는 Code, AI'를 주제로 학생·학부모·교직원·시민들이 AI·SW 관련 프로그램을 직접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전남교육청, 통합운영학교 행정 연수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지역 통합운영학교 행정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통합운영학교 행정 실무과정' 연수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통합운영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현장 행정 실무자의 업무 전문성과 청렴 의식을 함께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도내 통합운영학교의 행정을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 38명이 참석했다.

현재 전남에는 초·중 통합학교 8교, 중·고 통합학교 8교가 운영 중이며, 올해 이후 전한 예정 학교는 2교, 신설 예정 학교는 1교다.

이번 연수는 학교회계 운영, 물품·재산 통합관리 등 실무 중심의 강의와 함께 학교별 운영 사례 공유 및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도교육청 청렴특별정책팀이 직접 참여해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행정 실무에 도움이 되는 감사 사례를 소개해 실효성을 높였다.

강성근 행정과장은 "이번 연수가 통합운영학교 업무 담당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청렴한 조직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현장과 함께하는 행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통합운영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업무 매뉴얼을 배부하고, 실질적인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최환준 기자



한전, 금타 화재 비상전력 공급 지원

한전 광주전남본부(본부장 한병준)는 최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즉각적으로 비상 전력공급 설비 및 인력을 투입해 긴급구조통제단 지휘소 등 긴급하게 전기가 필요한 현장 곳곳에 비상 전력을 공급해 신속한 화재 진압을 지원했다.

광주전력관리처는 화재 발생 즉시 비상상황실을 운영하고 공급변전소를 유인근무 체제로 전환해 비상체계를 가동했다.

광산지사는 지사장을 비롯한 직원, 협력회사 인력과 활선차 3대를 투입해 화재 현장에서 긴급하게 전기 사용이 필요한 유관기관 합동 지휘소, 합동취재단 대기소 및 대기오염 측정 차량 등에 비상 전력을 공급했다.

또 화재진압에 투입된 소방대원들이 휴식 및 회복을 취할 수 있도록 마련된 현장 차량에도 전기사용에 필요한 콘센트 및 조명 등 비상전력을 공급해 소방 인력의 화재 진압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했다.

한전 광주전남본부는 화재 진압 후에도 고객 전력설비를 복구할 위한 컨설팅을 통해 지원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한전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긴급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전력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연수 기자

“간호사 헌신 열정에 최고수준 전문간호 실현”

전남대병원 백의회 정기총회 정미숙 간호사 '나이팅게일상' “환자 중심 의료 실현에 기여”

전남대학교병원 간호사들의 모임인 백의회가 최근 전남대 의과대학 명학회관 대강당에서 제5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26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이번 정기총회에는 정신 전남대병원장, 이석호 상임감사, 민정준 화순전남대병원장, 김명선 빛고을병원장, 윤경철 전남대병원 부원장, 김영민 전남대병원 사무국장 등 병원 보직자와 간호사 300여명이 참석했다. 내빈으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함께 했다.

1부 행사에서는 내빈소개와 최명이 간

호부장의 개회사에 이어 정신 전남대병원장, 민정준 화순병원장, 김명선 빛고을병원장과 김영록 도지사의 축사가 진행됐다.

시상식에서는 나이팅게일상에 화순전남대병원 63병동 정미숙 간호사가 선정됐다. 또 △역량강화 우수부서 △행복한 간호환경 우수부서 △조직문화 활성화 등 총 15개 부서를 선정해 시상했다.

최명간 간호부장은 “이 자리는 본·분원 간호부 구성원 모두가 함께 모여 지난해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그려보는 뜻깊은 시간이다”며 “간호사 한 분 한 분의 헌신과 열정 덕분에 간호는 단순한 업무를 넘어 최고수준의 인간중심 전문간호라는 미션을 실현하며 많은 이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미숙(오른쪽) 화순전남대병원 63병동 간호사가 최근 전남대 의과대학 명학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53회 정기총회에서 나이팅게일상을 수상했다. 전남대병원 제공

정신 병원장은 “6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간호사들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병원 발전과 환자 중심 의료 실현에 기여해 오신 백의회의 모든 발걸음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백의회가 간호사 여러분의 전문성과 협력을 바탕으로 병원 발전의 든든한 견인차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청소년복지위, 상호존중의날·장학금 전달

법무공단 광주남부지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소장 김윤철)가 최근 북구 '장군의 땅'에서 청소년복지위원회(회장 남형일) 주관으로 명랑운동회와 상호존중의날 행사를 가졌다.

보호청소년과 김장승 협의회장, 남형일 회장과 결연식이 진행됐으며 장학금 전달식이 병행됐다. 장학금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보호청소년들이 학업을 준비하는데 쓰이게 된다.

행사는 게임을 비롯해 보호청소년들과

기관장 간 대화 시간을 가졌으며 상호 존중의날 행사와 청렴 캠페인도 병행했다.

행사를 계기로 보호청소년과 청소년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청렴의 중요성을 실천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남형일 회장은 “보호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회 일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기 위해 마련했다”며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밝은 미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철 소장은 “보호청소년들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고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광주창경혁신센터, 초기창업패키지 성료

(재)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최근 '2025년 초기창업패키지' 선정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분석솔루션'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6일 밝혔다.

초기창업패키지사업은 창업 3년 이내의 초기 단계의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해 시제품 개발, 마케팅, 사업화 자금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부 창업 지원 사업이다.

광주창경센터는 분석솔루션 프로그램을 통해 선정된 창업기업들에게 창업 아이템에 특화된 기술 교육과 시장 진입 전략

분석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각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아이템이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솔루션을 지원했다. 프로그램 내 시장 진단 과정을 통해 참여기업은 '기술형'과 '시장형'으로 분류하고 유형에 따른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창업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하상용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선정된 23개 초기창업기업이 지역을 대표하는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오늘 교육을 통해 창업기업의 역량을 신장하고 향후 지속적인 멘토링을 바탕으로 창업기업의 실질적인 사업전략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승현 기자



나눔테크, 동구 돌봄이웃에 2천만원 기부

광주 동구는 최근 ㈜나눔테크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2,000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했다고 25일 밝혔다.

동구청 3층 접견실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임택 동구청장, 최무진 ㈜나눔테크 대표, 박홍철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이번 기부금 2,000만원은 지역 쪽방촌 주민의 공유부여 공간 조성과 저소득 장애인 및 돌봄이웃 지원 등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최무진 대표는 “지역사회에서 받은 사랑을 다시 지역에 돌려드리는 것이 기업

의 역할이라 생각한다”며 “지속 가능한 나눔을 통해 이웃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임택 정장은 “생명 존중의 실천과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기업으로서 모범이 되는 나눔테크에 감사하다”며 “지속적 기부가 우리 사회의 온도를 높이는 가장 따뜻한 힘이다”고 말했다.

한편 ㈜나눔테크는 심장제세동기 등의 의료기기 제조·판매 전문기업으로, 지난해 2,000만원을 기부한 바 있다.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 명문 기업'으로 등 록된 모범적 후원 기업이다. 이수민 기자



농협은행 전남본부, 동행기업 현판식

NH농협은행 전남본부(본부장 류종필)는 26일 영광 고추마을영농조합법인(대표 박영인)을 찾아 '희망농업 우리농가 동행기업' 선정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류종필 본부장은 박영인 대표와 현판식을 갖고 우리농산물을 활용한 식품 제조 방법을 청취했다.

NH농협은행은 2021년부터 우리농산물 소비활성화에 기여하는 우수기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한 '희망농업 우리농가 동행기업'을 선정해 왔으며, 올해 전국에 총 10개사를 선정해 여신우대와 판로확대 및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다. 고추마을영농조합법인은 100%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하는 기업으로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류 본부장은 “고추마을영농조합과 같이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 제조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해 농협은행 본연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NH농협은행은 가정의 달을 맞아 노인복지센터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고추마을영농조합에서 제조한 장과 영광지역에서 구매한 쌀을 구입해 전달했다.

이연수 기자